

통일관문 JSA에 ‘평화의 종’ 울리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종교구 ‘무량수전’ 낙성
16개국 전사자 위패 봉안
16만 내외국인 불심 전해

남북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통일의 관문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평화를 상징하는 부처님 광명이 두루 비쳤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스님)는 지난 3월31일 JSA에서 무량수전 신축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남북통일과 평화를 발원했다. 낙성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군종교구장 정우스님과 학교법인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1사단장 이종화 소장과 박정이 예비역 불자연합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량수전은 파주 군내면 JSA 안보견학관 옆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82.32㎡(24.9평)이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덕숭총림 수덕사 대웅전을 본 떠 만든 법당이다. 고려시대 건축기법을 모방해 바닥을 전돌로 만들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내부에는 아미타부처님과 관음, 대세지보살 등 삼존불을 모셨다. 또 나라를 위해 전사한 국군장병들과 6·25전쟁 당시 참전한 16개국 전사자 위패를 봉안해, 값진 희생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의미를 담았다.

종각불사도 함께 진행됐는데 9㎡(2.72평) 규모로 통일과 세계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625관의 ‘평화의 종’이 걸려 있다. 판문점 연간 방



지난 3월31일 JSA 무량수전 낙성법회에는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무량수전 불사가 원만히 회향한 것을 함께 축하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문인원이 16만 명으로,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조성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어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감도는 판문점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무량수전의 낙성은 어느 때보다 의미 있다”며 JSA 무량수전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상징이 되길 발원했다. 1사단장 이종화 소장은 “무량수전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돼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참보자가 돼 나라를 지키

는 호법신장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SA 법당 불사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원력이 담겨 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및 말사에서 2억7000여만 원을, 정우스님과 군종교구, 군법당 불자들이 5억5000여 만원을 모연해 평화불사에 동참했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오늘 불사는 수많은 인연들의 염원과 동참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하며 “무량수전이 JSA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도량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파주=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 아름다운동행-불교신문 공동기획/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 캠페인②

부처님오신날 준비 탄자니아 보리가람대 “연등회 기다려져요”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에서 봉축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세워진 교육도량에서도 봉축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올해 봉축기간에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탄자니아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해 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현재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등만들기 등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준비를 통해 불교 불모지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탄자니아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설립된 만큼 교육과 더불어 불교문화를 알리는 포교 도량으로서도 역할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준비가 한창이다. 사진은 탄자니아 아름다운동행 법인 법인처장 성유스님과 학생들이 연등을 만드는 모습.

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탄자니아 아름다운동행 법인 법인처장 성유스님이 학교 관리와 법당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불교문화를 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낯선 불교문화지만 연등만들기, 선무도 수련, 반야심경 독송 등을 통해 자츄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과 교수, 정부 관계자 등 10명은 오는 23일 탄자니아를 출발해 24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10일 동안 불교문화 체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방문단은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을 비롯해 연등회 및 봉축법요식 참석,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와 종단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을 계사로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불제자임을 다짐하는 수계식도 가질 계획이다.

또 사찰 방문을 통해 스님 및 불자들과 만나 감사를 표하고 본지와 아름다운동행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 캠페인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축제를 관람하고 1박2일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해 짧지만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한국 농수산대학 견학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접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선학원 분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208회 중앙총회 임시회

‘법인법’ 손질…권리제한 완화
해외포교 활성화 ‘교구법’ 개정
사면·복권·경감 동의 건 ‘통과’

해외특별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발원으로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시켜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외사찰에 대한 종단의 지원·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원행스님)는 지난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속개한 제208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각 국가 및 지역에 설치됐던 기존 해외특별교구를 ‘해외지회’로 지정해 지회 설립을 유도하고, 해외 지회 확대를 통해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교구장은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지회장은 지회에서 자율 선출 후 교구장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선학원 분원들에 한

해 제도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도 표결 끝에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종단에 등록된 사찰의 관리인 및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승려복지,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증무직 취임, 종단 명칭 사용,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에 입방할 수는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또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유고될 경우 상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중앙총회는 재심회계위원으로 원명스님과 웅산스님, 반야스님을, 초심회계위원으로 법진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는 지홍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 총무원장선출제도가 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격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선학원종단회수를위한특별위원회에는 수암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중앙총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불기 2561년도 징계자 사면·복권·경감 동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회기를 앞둔 208차 임시회를 폐회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승가교육 체계 혁신 감사”

대오스님 후원금 2천만원

고양 흥구사 주지 대오스님(사진)이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2000만원을 조계종 교육원에 기탁했다. 대오스님은 지난 3월29일 오후 2시 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교육원장 현응스님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오스님은 “현대사회 흐름에 맞게끔 종단 승가교육 체계가 혁신된 것에 대하여 평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늦었지



만 전법포교를 위한 승가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어린이법회, 문화, 복지, 종교교류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사찰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기본교육기관 학인들 행사인 ‘설법대회’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1면에 이어

3. 지원 방법

불교신문 홈페이지(www.ibulgyo.com)에서 제출서류 다운 후 이메일 접수(이메일: bud22@ibulgyo.com)또는 우편, 방문접수

4. 접수기간: 2017년 4월 3일 ~ 4월 19일 18시까지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동의서, 조계종 신도증 사본 또는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부속서류(서류합격자에 한해 발기전형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외국어시험성적사본, 기타 경력증명서 각1부

6. 접수처: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7(전지동) 불교신문사 업무국 ☎ 02-730-4489

7. 유의사항

- 1) 최종 합격자 발표는 불교신문과 인터넷 불교신문(www.ibulgyo.com)을 통해 발표합니다.
-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8. 문의처: 불교신문사 업무국 관리부 ☎ 02-730-4489

불교신문사

봄 부처님 오신날 축하

전국 사부대중께 드리는 말씀

전국의 사부대중 불제자님들께 합장 귀의 하옵니다! 불가(佛家)에서 염주(念珠)는 불자의 정표이며 호신법구이고 내 주위에 사사스러운 액운을 퇴치하는 부처님의 무기 금강저(金剛杵)입니다. 부처님 전에 절(拜)과 염불의 예를 드리는 수행 법구의 일종으로 불자님에게는 공덕의 어머니이며 몸에 항상 지녀야하는 수호장신구로써 귀중한 보배입니다. 이러한 법구를 영험으로 제작하여 사부대중 제위께 108염주와 합장주를 소개 하오니 기쁨으로 취하시어 금생안온과 내생안위를 기약하소서. 불자 원심화 합장

108염주



흑단: ₩6,000



장미목: ₩6,000



완판

합장주



완판



장미목: ₩2,000



완판



연실주: ₩2,000

염주두께: 1cm 판매단위: 합장주 100개 이상 주문 받습니다(108염주는 50개)

완판: 주문 생산 판매로 판매완료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선물로 좋습니다. ※다르마켓에서도 구입가능합니다.

판매처: (주)프린스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981 시청센트빌204호

담당: 불자 원심화(이임생) 010-4189-2656 Fax 051-867-4004 계좌: 농협 356-0989-0329-33(이임생)

반야심경 전통부채 (실크천, 오죽선, S부채)

선물용·대량주문 문의 환영!!

실크천 부채 (대나무+실크천)



오죽선 부채 (대나무+한지)



〈전통부채 가격표〉



템플스테이 선물용 부채 제작전문

전통부채 주문제작

			(VAT 별도)
실크천 부채	한문 반야심경	22cm x 30살대	3,500원
오죽선 大	한문 반야심경	29cm x 30살대	3,500원
오죽선 中	한글 반야심경	25cm x 25살대	3,000원
S부채 (사출)	한글 반야심경	20cm x 19살대	2,000원

(케이스, 매듭 포함)

* 10개 미만은 택배비 2,500원 별도, 500개 이상 가격 별도문의



〈접은상태 및 케이스〉

전통부채국내제작업체

A3기획

서울시 중구 약수동 349-70번지 2층 02-2273-3223 / 010-5273-3978

www.a3fan.co.kr